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한별 1997년 (23세) | 여 | 구직중

0357qq@naver.com

010-8925-5284

-

(612-831)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1090-37 2층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근무형태	희망근무지	포트폴리오
대학교(2,3년) 졸업	경력 2년	2,400~2,600만원/정규직 (직전 연봉 : 2,100 만원)	부산전체	http://chbyeol.co.kr/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2,3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9.08 ~ 2021.09	편입/ 졸업예정	고려사이버대학교 (서울)	디자인공학과	-
2012.03 ~ 2017.02	졸업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예체능계 (멀티미디어 마케팅과)	-
2015.03 ~ 2017.02	졸업	부산경상대학교 (부산)	광고·인테리어 디자인과	4.3 / 4.5

경력 총 2년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직종	연봉
2017.02 ~ 2019.02 (2년 1개월)	부산경상대학교	디자인 / 주임 / 2년차	부산 / IT·인터넷 > 웹디자인	2,100만원
	담당업무 웹디자인 및 팝업 디자인 퇴사사유 계약만료			

대외활동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15.03 ~ 2016.12 (1년 10개월)	동아리	부산경상대학교	학과전공동아리 슈퍼스타즈 - 공모전 동아리
2016.03 ~ 2016.12 (10개월)	동아리	부산경상대학교	취업동아리 광취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15.06	자격증/면허증	그래픽기술자격(GTQ) 1급	한국생산성본부(KPC)	최종합격
2016.07	자격증/면허증	GTQ일러스트 1급	한국생산성본부(KPC)	최종합격
2016.12	자격증/면허증	GTQ인디자인 2급	한국생산성본부(KPC)	최종합격
2015.05	자격증/면허증	2종보통운전면허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최종합격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http://chbyeol.co.kr/

자기소개서

[발이 닿는 곳에서 더 다양한 것을 배우는 점이 원동력이다.]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배우는 재미
끈질긴 생명력은 가족에게 배움으로 터득했다.
아버지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 늦은 나이에 회사를 나와 재취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만큼 뒤에 따르는 경력의 중요함을 알려주셨다. 솔직히 지금 사회에 학력이 높아야 좋은 회사를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보고 달라졌다. 좋은 학교가 아니더라고 본인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한 사람의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재취직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좋은 회사에서도 연락이 온다는 글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게 아버지는 길을 만들어주셨다. 끈질기게 뭐 하나를 물고 늘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빠는 직업군인을 하기 위해 19살부터 열심히 공부와 면접 공부를 했다. 짧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아닌 2년이라는 시간을 학원과 집을 반복하는 것을 자주 봤다. 그사이에 시험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붙는 좋은 결과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오빠가 하는 말은 결국 끈질기게 파고든다면 못 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것을 못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쉽고 배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말이다. 그러던 중 새로운 분야에 취직하게 되었고 일을 할 때도 배울 때도 그때 들었던 말들 덕분에 끈질기게 파고들어 짧은 시간에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끈질기게 하나를 잡고 배우면 내가 그 분야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식과 실력이 쌓이고 내가 찾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는 것을 가족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내성적인 사람의 발표능력
그냥 수업만 잘 듣고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학교생활을 하던 중 창업대회를 통해 많이 달라진다.
그만큼 발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채점되는 부분이었다. 뭐 하나 잘하는 분야가 없었던 학생 때는 결국 다들 하기 싫어한다는 발표를 맡게 되었다. 하기 싫어도 빠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과정과 결과까지 발표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부분에 있어 결국 죽으라고 연습만이 내가 할 길이었다.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싫어했던 모습은 달라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발표를 통해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눈을 내게 사로잡을 수 있었으며 어디에서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만큼 내가 알리고 싶었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을 만큼 당당해졌다.

성격조차 달라지게 만들었던 대회의 발표자
작은 목소리로 물론 사람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큰 목소리와 당당한 말투는 더 많은 사람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대회준비를 위한 대본과 발표연습을 하면서 내성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당당하게 사람들과 즐겁게 얘기할 수 있으며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많이 더듬는다. 그래서 그 대본 또한 여러 번을 쓰면서 발표할 때 더듬는 것도 없이 그리고 즉흥적으로 어떠한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할 수준으로 말을 할 능력을 발표가 만들어주었다.

새로움의 재미와 배움을 주었던 2년이란 시간
디자인 전공이지만 디자인에 자신이 없이 졸업하게 되었다. 그렇게 어영부영 교수님 추천으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다. 디자인 프로그램만 만질 줄 알았던 그때는 기초적인 수준밖에 몰랐던 분야의 취직이라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한 디자인에를 클라이언트가 좋아하고 꼼꼼한 수정사항들을 받다 보니 디자인적 감각이 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다른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기준점도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성과 작업물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고 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타당한 근거라 있어야 한다고 깨우치게 해주었다.
학생 때와 마음가짐부터 다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직장생활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내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마무리 또한 내가 해야

하고 포장 또한 내가 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과에 대한 비판과 칭찬도 들어야 한다. 그것이 또 내가 할 작업에 좋은 영양분이라고 알려주었다.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